

세계 최초 신개념 ICT 드론축구 도입

전주시, 문체부-체육진흥공단 공동 주최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공모사업' 추진협약 체결

2017 FIFA U-20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축구도시 전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산업과 특화분야인 탄소산업을 융합한 드론 축구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주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축구의 종주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8일 서울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2016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공모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3년간(사)캠빅종합기술원과 함께 국비 4억3000만

원 등 총 7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드론과 탄소를 융복합한 신개념 ICT 드론축구 인프라를 갖추는 등 드론축구를 스포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는 1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드론축구 홍보를 위해 적정장소에 상설 드론축구 체험장을 마련하고, 많은 시민들과 프로축구팬들이 일정기간 동안 드론축구 게임을 무료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드론축구를 시민스포츠클럽으로 키워나가는 방침이다.

시는 드론축구가 전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드론산업은 물론 ICT기술을 적용한 탄소복합재와 레이저, LED 등 ICT융복합 산업 발전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들의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신개념 ICT 드론 축구'는 LED로 색 조명과 효과음, 센서로 무장한 드론플레이어들이 광학렌즈 안에서 축구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드론 축구플레이어 및 축구공은 관중들의 눈높이 맞춰 일정한 높이(1.5m 정도)에서 경기를 진행하며, 박진감 넘치는 효과음으로 관중들에게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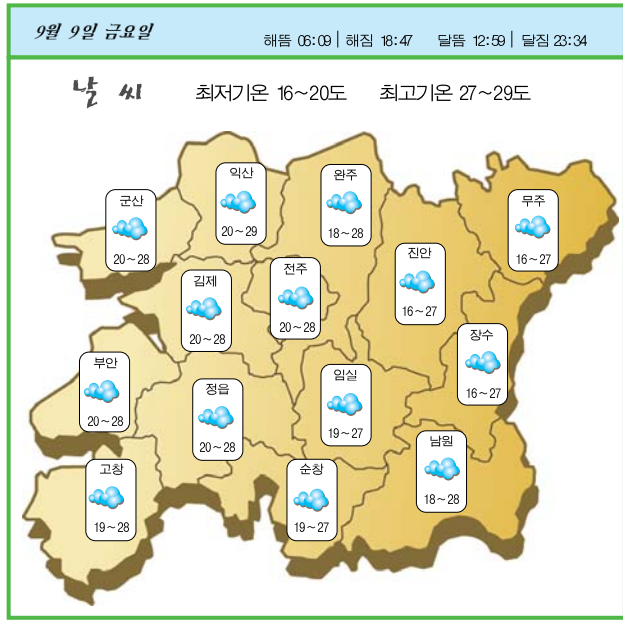
듣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경기는 양팀 약 5대씩의 드론축구 플레이어들이 참여한다.

관중 안전을 위해 드론에는 축구공처럼 LED보호기구를 착용하고 드론이 펜스에 닿으면 센스작용으로 떨어져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제어할 계획이다.

강창수 전주시 탄소산업과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ICT기술을 적용한 탄소복합재 및 첨단 레이저, LED 음향 제어 등 드론축구 요소개발에 공동으로 참여, 지역기업의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지역예술인들에게 '인기'

최고의 음향·조명 시스템 입혀 전북 유일 공연예술 연습 전용공간으로 재탄생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옛 동산동주민센터에 조성된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이 예년 같았으면 비싼 임대료에 마음껏 창작의 열정을 불태울 수 없었던 지역 공연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공연연습에 매진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연연습공간은 음격을 흡수하는 바닥재와 방음실벽 등 최고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최고의 음향·조명 시스템을 입혀 전북 유일의 공연예술연습 전용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또, 최고의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도 이용요금도 3시간 기준에 대연습실은 2만원, 중연습실은 1만원만 지불하면 음향장비 사용료 및 전기요금 등 추가 부담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개관 초기에는 전주 북부권에 위치한 관계로 이용을 마다했던 예술인들도 이곳을 이용한 후 만족감을 나타내는 동료 예술인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이용 예약이 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공연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예술연습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해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모사업인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7억원을 확보해 옛 동산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공연예술인들을



풍성한 한가위 송편 빚기 추석 명절을 앞두고 풍성한 한가위 송편 빚기 행사가 8일 전주 삼천동 신성양로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주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김영순)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나눔 송편을 만들어 즐거워 하고 있다.

위한 전용연습공간으로 조성했다.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관계자는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습 공간 중 가장 최근에 지어 완벽한 방음과 충격흡수 바닥재 마감 및 최고의 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피아노, 드럼 등

대형 악기도 구비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많은 민간 예술인들이 찾아와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껏 공연예술 열정을 꽃피워가는 공간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관은 온라인 대관신청만 가능하며, 오페라와 뮤지컬 연극, 무용, 전통, 음악, 다원 분야 등 공연예술 분

의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온라인 통합대관시스템(<http://bang.arkoor.kr>)으로 대관을 신청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213-201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원광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김흥주 교수 연구팀 사회과학연구지원 SSK 사업 선정

먹거리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로 미래 정책 트렌드 주도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 김흥주 교수(사진)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에서 2010년부터 사회과학연구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SSK 3단계 대형연구센터에 건국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선정됐다.

SSK 사업은 사회과학 분야 우수 연구 집단 지원 및 후속세대 육성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를 예측·설계하기 위한 한국연구재단의 중장기 기획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처음 3년간 매년 1억이 지원되는 소형과제로 시작해 연구 성과에 따라 추후 2단계 중형과제로 성장하면 3년간 매년 3억씩 연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어 3단계 대형과제에 선정되면 연구센터 개설 및 운영을 위해 매년 5억 이상을 4년 동안 지원받는다.

김 교수 연구팀은 '먹거리(food)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주제로 지난 2010년 소형 연구팀에 선정됐으며, 2014년 우수한 성과로 중형 연구단 진입에 이어 이번에 연구단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대형연구센터로 선정됐다.

특히 건국대 기후연구단과 연합으로 대형연구센터를 운영해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미래 정책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김흥주 교수 연구팀은 대형연구센터 협력대학으로서 향후 4년간 매년 2억 5천만 원씩 10억 이상을 지원받아 연구센터운영과 대학원생 교육지원, 지역 현장 사업 지원 등에 나선다.

김 교수는 "대형연구센터 주관대학인 건국대 기후연구 능력과 협력대학인 원광대의 농식품산업 특성화 역량이 사업선정에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 대학 내에 대형연구센터를 더욱 확장·발전시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에는 세계적 수준의 푸드시스템 융합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은행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